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충이 「원가」를 부른 까닭은?

누렇게 뜬 나무는 왕권 상실을 의미

1. 바둑과 약속
 성덕왕과 소덕왕후(제3왕후) 김 씨 사이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은 잡저(雜祿) 시절, 즉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때 현사 신충(信忠)과 대궐 정원의 잣나무 아래에서 자주 바둑을 두었다. 승경은 신충에게 “이 다음에 그대를 잇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며 신충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성덕왕은 왕과 성정왕후(제1왕후) 사이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숙위(宿衛)로 가 있던 수충(守忠)을 내치고 대신 엄정왕후(제2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중경(重慶)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하지만 엄정왕후의 출궁(出宮)을 빌미로 중경 태자를 몰라나게 하고 소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승경(承慶)을 태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효성왕이다.
 승경이 바둑을 두며 약속한 몇 달 뒤 성덕왕이 36년 재위를 마치고 승하하였다. 당시 15세 무렵이던 승경(承慶)이 효성왕으로 즉위(737)하였다. 효성왕 재위 2년 봄에 당나라 현종은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어 왕이 왕비 박 씨와 결혼하자 당은 사신을 보내 왕비를 책봉하였다.
 효성왕은 즉위한 뒤 공신(角身)들에게 상을 주었다. 그런데 그만 신충을 잊어버리고 등급에 넣지 않았다.

이에 신충이 효성왕을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니 잣나무가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효성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알아보도록 하였다. 사자(使者)는 신충이 지은 노래를 찾아 효성왕에게 바쳤다.
 효성왕이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정무가 바빠 공신을 잊을 뻔 했구나.”
 이에 효성왕은 신충을 불러 이전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잣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효성왕은 재위 3년 봄 정월에 조고(祖考)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이즈음 효성왕은 부왕 성덕왕과 마찬가지로 첫 왕비를 왕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중시 김의충(金義忠)이 죽자 이찬 신충을 중시(中侍)로 삼았다.

2월에는 왕의 아우 현영(憲英)을 승진시켜 파진찬으로 삼았다. 3월에는 이찬 김순원(金順元)의 딸 혜명(惠明)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효성왕 6년 5월에 동모제(同母弟)인 현영(憲英)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유성(流星)이 삼대성(參大聖星)을 변한 뒤 갑작스럽게 승하하였다. 유성이 삼대성을 변했다는 것은 아우인 현영의 일과가 효성왕을 암살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재위 6년의 효성왕에 이어 현영은 경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어 중시는 신충에서 유정(維正)으로 바뀌었다. 이후 신충은 한 동안 이찬으로 재직했으며, 경덕왕 16년에는 상대등이 되었다.
 하지만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경덕왕

역시 몇 차례의 반란을 감내해야만 했다. 16년 봄 정월에는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병으로 퇴직하자 경덕왕은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는 내외 여러 관원의 월봉(月俸)을 없애고 다시 녹음(祿邑)을 주었다. 이때 왕당파의 거두였던 신충은 아찬 김양상(金良相)을 우두머리로 하는 반대파에 밀리게 된다. 경덕왕 22년 8월에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용(金鏞)이 다 면직되었다.

2. 신충의 면직과 이순의 출가
 이때 대나마 이순(李俊, 『고승전』에선 李紉)은 왕의 총신이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속을 버리고 산중에 들어갔다. 그는 여러 번 불라도 나오지 않은 채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순은 왕을 위하여 단속사(斷俗寺)를 창건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 뒤에 그는 왕이 음주가무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곧 궁문에 나아가 간하였다. “신이 들으니 옛날 결주(桀紂)가 주색(酒色)에 빠져 음탕(淫蕩)과 안락(安樂)을 그칠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정사가 문란하고 국가가 패망하였다고 하옵니다. 앞에 가던 수레가

효성왕, 외척 눈치에 신충 공훈 누락 원망하는 노래 써붙여 벼슬길 올라
효성왕·경덕왕 대 왕당파 거두로

얼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옵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로 새롭게 하시어 나라의 수명을 영구하게 하옵소서.”

왕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하고 정전(正殿)으로 불러들여 도(道)의 진리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듣고 여러 날 만에 그쳤다.

신충은 효성왕과 경덕왕 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지만 두 친구와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린 뒤 남악인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양주동은 “신충이 단속사를 세웠다고 했으나 『삼국사기』의 경덕왕 22년 기록에 의하면 일연 선사는 ‘면(免)자를 간과하여 신충과 김용, 이순 3인이 함께 ‘왕의 총신이었지만 현연 하루 새벽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高王寵臣, 忽一旦, 避世入山)고 읽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인용하면서 ‘신충과 두 벗이 서로 맹약하여 관복을 걸어두고 남악으로 들어가 다시 불라도 나오지 않았다’(忠與二友 相約, 掛冠入南岳, 再微不就)고 쓰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일연은 “(그가) 머리를 깎고 승려



누렇게 뜬 잣나무. 신충은 자신의 공을 잊은 왕을 원망하는 노래인 「원가」를 지어 벼슬길에 올랐다. 잣나무는 왕실을 상징한다.

가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거기에 머물면서 평생 속세를 떠나 대왕의 복을 빌겠다고 원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금당 뒷벽에 남아 있는 진영이 바로 신충이다”고 하였고 적었다.

이에 양주동은 “『삼국사기』에 인용된 개별 삼인(三人)을 곧 삼(三) 화상으로 취단(驟斷)한 때문이다”고 하였다.

일연 또한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에 ‘할주(割註)에서 ‘살피보건대 『삼화상전』에는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가 있어 여기 이 절과 서로 혼동된다. 그러나 따져보면 전설에 있을 일연이 여기의 신충이 아님이 분명하다.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일연은 “또 『별기』에 이런 말이 있

다. ‘경덕왕 시대에 벼슬이 직장(直長)인 이준(고승전)에선 이순이라 했다’이 일찍부터 나이 50이 되면 반드시 출가하여 절을 세우겠다고 발원하였다. 천보 7년 무자(748)에 나이 50이 되자 조연(槽淵)에 있던 작은 절을 고쳐 큰 절로 만들고 절 이름을 단속사(斷俗寺)라 하였다. 자신도 또한 머리를 깎고 법명을 공공장로(孔宏長老)라 하여 절에 20년간 머물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에 실린 것과 같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다 기록하여 의심을 없앤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9 「경덕왕 23년」 조의 “23년 봄 정월에 이찬 만종(萬宗)으로 상대등을 삼고 아찬 양상(良相)으로 시중을 삼았다” 기록을 함께 보면

22년 8월에 복사꽃과 오얏꽃이 두 번째 피었을 때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용이 모두 면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주동은 “삼국사기 원문은 신충, 김용 두 사람의 사면(赦免)과 이순의 피세(避世) 입산(入山)이 개별사실로 서술되어 있는데 선사는 ‘면(免)일자를 간과하여 신충, 양상, 이순 삼인이 모두 왕의 총신으로서 현연이 어느 날 새벽에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다고 풀이하였다”고 하였다.

즉 양주동은 신충과 양상은 출가한 적이 없는데도 일연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면’ 일자를 간과하여 신충이 두 벗과 함께 벼슬을 버린 뒤 남악으로 들어갔다고 잘못 보았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서 일연은 『삼화상전』에 실린 신문왕대의 ‘신충봉성사’를 지은 ‘신충’과 효성왕의 벗이었던 신충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면’ 일자를 간과하여 세 사람 모두를 출가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일연은 이렇게 찬시를 붙였다.
 “공명은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귀멸틸이 먼저 세고, 임금 총애 비록 많으나 한평생이 바쁘다/ 언덕 지면 산이 자주 꿈속에

일연, 신충의 ‘면직’을 출가로 기록 이순 지은 단속사, ‘신충봉성사’와 혼동 이순 신충 김용 3인 출가로 봐 찬시

3. 「원가」의 해석

향가는 주(詠)가(呪歌)와 치리가(治理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 ‘원가’ 역시 이러한 공능을 지닌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잠저(潛邸) 시절의 효성왕과 바둑을 두며 벼슬을 약속받은 신충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자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이를 입증한다.

여기서 나무의 소생은 나무로 상징된 권력의 재생, 왕권의 회복, 우주질서의 재생을 뜻한다. 또 바둑[圍碁]은 흔히 신전(神殿)이나 성수(聖樹)에서 지냈던 비밀스런 제사 또는 이에 관련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옛날에 반고(班固)는 “바둑판은 땅을 상징하고 두는 행위는 명명한 덕을 나타낸다. 흑백의 바둑돌은 음양의 이치이며, 바둑판에 돌을 포석(布石)함은 천문을 본뜬 것이다. 사상(四象)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대개 왕정(王政)이니, 바둑은 천원지방(天圓地方)과 음양사상(陰陽思想)을 위시

하여 제왕의 치세[治], 오패(五霸)의 권세[權] 등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풍요와 재생을 상징하는 성수 아래서의 바둑은 그 놀이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주의 질서를 모사한 소우주적 실수행위(實修行為)로 이해할 수 있다. 『황폐강』

“잣나무는 우주의 나무이다. 우주의 나무는 세계의 이미지로 또는 세계의 축으로 인정된다. 우주의 주기적 재생 기능이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우주나무의 작용은 이 경우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충의 첨가(添加)는 우주나무의 이와 같은 기능을 정지 또는 손상시키는 주술이 되었다. 우주 중심에 있는 성수에 가해진 어떠한 저주도 우주의 질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왕권과 동일시된 잣나무에 대한 가해는 곧 왕권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이는 유감주술(類感呪術)로 보인다. (양주동, 『국학연구』 9호)

노래는 이러하다. “질(質) 좋은 것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며,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갖/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더/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하여 버린 처지여 버린 처지(處地)여.” (김완진 역) “물 좋은 것이/ 가을에 아니 이르러 떨어지매,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구나’ 하신// 우리르던 얼굴이 변하신 데에야/ 달이 그림자여서 달은 연못에/ 오고가는 물결에서 새어나갈 같이/ 모습이야 바라보나/ 세상 아무데에 숨은 적에야.” (신재홍 역) “질 좋은 잣나무는 가을에 아니 그릇 떨어지되/ 너 어찌 잊으랴 말씀하신// 우릴던 낮은 변화셨도다/ 달 그림자 진 옛 못에/ 흐르는 물결 옛 모래인양/ 모습이야 바라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

실권이 없는 왕은 등극 이후에 신충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외척세력의 간섭으로 그를 등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신충은 각박한 인정세태와 무정한 세상사를 탄식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노래가 ‘육구총족의 상징적 제의가 되어 추가(呪歌)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공고, 1976).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동서문화사, 1976; 2007; 2010).
 양주동, 『고구려연구』(일조각, 1965; 1990 중판).
 황폐강, 『항구문학의 이론과 해석』(현암사, 1980).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교학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부적기름의 혁명
松根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질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질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 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값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 이민희

☎ 010-8558-2345

217회
개달은 3000배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부처님오신날을 삼매체험한 에너지로 예고 중생 맘 확 녹이고

진짜 참회 처음 공개!!

착한척, 잘난척, 아는척, 똑똑한척,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복짓고, 입장소멸, 참회기도, 갖가지 수행하는데 왜 병, 불행에 쫓기고 있나?

※천도제, 조상타령, 귀신타령, 팔자타령, 폰타령, 절대 하지 않음

◎날 짜 : 8월 31일(토) 저녁 9시 ~ 9월 1일 아침 7시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 기도포, 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 3분, 서·울산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청소년들이 많이 삼매체 체험하고 개달음으로 나가며 학교에서 리더로, 세상에서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개달음의 법회를 준비중입니다.

개달음수원불교 · 개달음빠른불교 · 개달음주는불교
법왕 참부처님 참불교 법왕정사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010.3487.0035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촬영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